

페루 아마존의 밤



밤이 물러가자 아마존에는 신세계가 찾아왔다. 새벽녘부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동물들의 발걸음과 새들의 지저귀이 귀를 간지럽혀 눈이 번쩍 뜨였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모기장을 걷어제치자 방갈로 테라스 너머로 어스름한 하늘을 가르는 아침햇살이 번지고 있다. 혹시나 때를 놓칠 새라 주섬주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일생에 몇 번 없을 정글의 해돋이를 보기 위해 부지런을 떤 사람들이 벌써부터 한쪽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사각거리는 풀숲을 가로질러 강둑에 서자 전 날에는 미처 알아채지 못한 아마존의 원초적 아름다움에 폭풍 같은 감동이 밀려왔다. 폭 250m에 달하는 마드레 데 디오스 강은 밤새 잠들어있다 기지개를 켜는 생명체처럼 꿈틀대며 흘렀다. 간밤의 폭우로 강바닥에 깔려있던 적갈색 토양이 많이 올라와서인지 더욱 짙은 색으로 흐르는 자태가 흡사 한 마리의 용과 같았다. 그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마주하고 있노라니 어느 순간 동쪽을 향해 힘차게 뻗어가는 강물 저편이 서서히 짙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아마존의 젓줄과 광활한 하늘이 맞닿은 지점에 어렴풋이 붉은 빛이 피어올랐고 이내 온 세상에 연한 주황빛이 퍼졌다. 그리고는 곧 커다란 태양이 물안개를 가르며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잔하고 온화한 빛을 뿜으며 나타난 해는 순식간에 하늘로 떠올랐다. 간밤의 폭우로 한껏 생기를 머금은 열대의 식물들은 초록빛이 극에 달했다.

그날 내 눈앞에 펼쳐진 아마존의 아침 풍경은 한마디로 장관이었다. 끈적이는 공기와 낮선 환경 때문에 살짝 겁에 질렸던 내 마음에도 환한 햇살이 들어온 기분이었다. 원시적이기 그지없는 자연의 깊은 품 안에서 인간은 그저 수많은 생명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장엄한 대자연의 가르침에 숙연해졌다. 나 자신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겼던 벌레나 곤충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우주의 일부이자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위대한 신의 창조물임을 깨닫는

놀라운 순간이었다. 유유히 흐르는 황토빛 아마존의 강물이, 수많은 작은 생명이 세찬 빗물에 씻겨 나가버린 땅 위에 다시 떠오른 태양이, 그 안에서 활기차게 질긴 삶을 이어가고 있는 동식물들이,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아마존 여행의 묘미란 바로 이런 것이리라.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 시계는 겨우 아침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번덕스런 날씨 때문에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방갈로를 나서 액티비티 본부로 향했다. 그곳에는 열대우림 지역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 출신의 탐험대장들이 포진해 있었다. 독특한 새와 야생동물 관람 투어, 정글 속 피크닉, 카누 여행, 낚시, 캐노피 체험 등 수없이 많은 할 것들도 준비되어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캐노피 워크라는 투어를 선택했다.

캐노피란 원래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들이 해발 20~30m 높이에 그물처럼 드리우는 나뭇가지들을 뜻하는 말이다. 내가 머문 리조트에는 캐노피의 식생을 관찰 연구하기 위해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함께 설치한 지상 30m 높이의 망루들과 그것을 연결하는 흔들다리들이 있었다. 캐노피 워크는 바로 그 흔들다리들을 건너 망루를 돌면서 아마존의 밀림을 내려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속도에는 별로 겁을 내지 않는 반면 높이에 큰 공포를 느낀다. 그런데 30m 높이에 설치된 흔들다리라니 아무리 일생일대의 경험이라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엔 동반한 사진작가 레이나한테 '너만 체험하면 된다. 난 근처까지 동행만 하겠다'고 따라나선 걸음이었다. 우리의 안내를 맡은 이는 띠또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토박이 청년이었다. 조선시대 사형집행인인 망나니들이 쓰던 것처럼 크고 둥글게 흰 위협적인 칼을 하나 집어 든 그를 따라 드디어 아마존에서의 두번째 모험이 시작되었다. 본부를 벗어나 방갈로들을 끼고 강둑을 조금 걷다보니

PERU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사이로 좁은 길이 하나 나타났다. 길이라기 보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녀 풀이 자라지 못해 저절로 생긴 통행로 정도인데 입구에서부터 얼마나 진흙이 말썽을 부리는지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장화는 물론 온몸에 진흙이 튀어 붙었다. 때로는 상당히 수다스럽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는데 신기한 식물이나 열매가 나올 때마다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어 그것을 쪼개거나 잘라 우리에게 선물해주었다. 핑크색을 띤 삼페인 잔 모양의 버섯이 나타나면 뜯어서 건배도 하고, 모기를 쫓는 풀이 보이면 뽑아서 모자에도 달아주고, 매운 맛을 내는 열매가 있으면 혀끝에 대고 자지러지는 몸개그도 보여주었다.

정글 투어는 흥미로운 모험으로 가득했지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앓았음을 고백해야겠다. 몇 걸음에 한번씩 발목을 잡는 진흙발에 걸려들었다 겨우 위기를 모면하는가 하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점점 더 많은 모기떼와 전쟁을 벌여야했다. 하지만 곧 쓰러질 듯한 위기의 순간에도 함부로 주변 식물을 부여잡고 일어서서는 안되었다. 어떤 것이 독을 품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가시로 뒤덮여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덕분에 한손에 부채를 들지 않았을 뿐 놀이마당에서의 줄광대처럼 균형을 잡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 채 조심스레 한발씩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사방을 에워싼 수천, 수만 가지의 동식물들을 관찰하며 걷다보니 첫 번째 망루에 다다랐다. 잠시 숨을 고르고 발밑이 흰하 내려 보이는 아슬아슬한 나무 계단을 올랐다. 드디어 정상에서 마주한 놀라운 풍경. 그것은 과연 온몸이 땀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도록 걸었던 보람을 느끼고도 남을만한 것이었다. 내 몸뚱이보다 더 큰 나뭇잎들이 발 아래로 카펫처럼 내리깔려 있다가 이따금씩 카드섹션처럼 빛을 달리하며 출렁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혹시라도 발을 헛디더 그 안으로 떨어졌다가는 맹수와 벌레들의 먹이가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만 같은 아찔한 생각도 들었지만 그 두려움이 감동을 이기지는 못했다. 잠시 난간에 기대어 정글숲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자니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이 대자연 앞에 미미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다.

그때, 레이나가 사진 한 장 찍어줄 테니 흔들다리 위로 몇 걸음만 걸어가 보라고 나를 꼬시기 시작했다.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거기까지 가서 인증샷 한장 없이 돌아서긴 너무 아깝지 않다. 그런데 이 맹랑한 아가씨가 ‘조금만 더 뒤로, 한 발짝만 더, 거기 서면 사진 앵글이 안 나와, 조금만 조금만...’이라며 나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바람에 찢끔찢끔 걸음을 옮겨 사진을 찍고 나니 어느새 흔들다리 삼분의 일 지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후회하기에 이미 때는 늦었다.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똑같이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언제 또 내가 아마존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하겠나 싶어 용기를 내보았다. 내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다음 망루까지 걸음을 옮기자 일행은 일제히 환호했다.

“잘했어! 거봐, 할 수 있다니까. 고고고!”

그렇게 해서 난 총 일곱 개, 길이로는 350m에 달하는 다리를 모두 정복하고 캐노피 투어를 마칠 수 있었다. 다리가 심하게 흔들릴 때는 엉성한 그물 사이로 빠질까 싶어 가슴이 철렁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두 번 다시 내 인생에 이런 기회는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과 콤플렉스처럼 간직하고 있던 고소공포증을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기대 덕분이었다. 오전에 걸었던 길을 되짚어 숙소로 돌아왔을 땐 온 몸이 진흙과 땀으로 범벅되어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었다. 황토빛이었던 강물에 웬지 붉은 기운이 감돈다 싶더니 아름다운 석양이 하늘을 장식했고 이내 전날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통째로 삼킬 듯한 폭우가 쏟아졌다. 부랴부랴 방갈로 테라스에 장화를 거꾸로 세워두고 샤워기로 뛰어들었다. 옷을 벗고 나니 비로소 밀림 속을 헤집고 다닌 흔적이 드러났다. 수없이 많이 모기에 뜯기고 햇빛에 그을린 피부가 따끔거리 고통스러웠다. 찬물에 샤워를 하고 약을 발라도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일에 불평할 기운도 없이 피곤이 몰려와 만사 제치고 곧바로 침대 속으로 기어들었다. 그런데 미처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 또하나 기다리고 있었다. 높은 습도 때문에 온종일 수증기 속을 거니는 것만 같더니 침대보마저 어찌나 축축한지 짝 짜면 금세 물이라도 나올 것만 같았다. 온몸이 근질거리는데 물에 젖은 이불 속에서 벌레 울음소리와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해야 하는 찜찜함을 과연 경험하지 않은 이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인간의 적응력이란 참으로 놀랍다. 결코 잊지 못할 아마존의 밤, 평소 같으면 발가락 하나도 집어넣지 못했을 천원 물침대에 드러누운 채, 자연 앞에 깨끗하게 기권표를 던지는 패자가 된 마음으로 나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 위 글은 필자의 페루여행기 중 일부입니다

